

주일에배
오전 (1부) 8시 30분 7시
오전 (2부) 7시 30분 7시
오전 (3부) 7시 30분 7시
오전 (4부) 7시 30분 7시
금요일 (1부) 18시 30분 2시

서울 교회 1600-0688
장소: 강서구 화곡동 KBS 88체육관

Jesus Centered News

주일에배
오전 (1부) 8시 30분 7시
오전 (2부) 7시 30분 7시
오전 (3부) 7시 30분 7시
오전 (4부) 7시 30분 7시
금요일 (1부) 18시 30분 2시

인천 교회 032) 763-9191
장소: 인천시 서구 가좌동 472번지

예수중심교회

2014년 2월 2일 (제727호)

(서울) 서울시 용산구 용산우체국 사서함 37호 Tel. 1600-0688, 02)533-9191 Fax. 02)592-9191 (인천) 인천시 서구 가좌동 472번지 Tel. 032)763-9191 Fax. 032)575-5730 http://www.jcc.tv (월요일 예배 위치 및 인터넷 생방송)



봉 우 칼럼

반복수정은 창조다

지난 연말, 나는 우리 기획실 직원들과 함께 여러 가지 작업을 했다.

처음에 우리는 상용화된 디자인을 모방했다. 그러나 그것을 고치고 다시 고치고, 수정하고 다시 수정했더니 전혀 다른 스타일의 디자인이 창조되었다. 값진 깨달음이었다.

나는 이것이 디자인에만 국한된다고 생각지 않는다. 모든 면에서 반복적인 수정은 창조를 낳는다.

원래 모든 것은 모방에서부터 시작된다. 당신이 무언가를 디자인하거나 만들고 나서 인터넷을 뒤져봐라. 당신의 것과 똑같은 것이 이미 출시되어 시장을 누비고, 상용화되었음을 알게 될 것이다. 그러나 실망하기에는 아직 이르다. 그것을 다시 보고, 고치고, 다시 수정하고, 또 한 번 보완하면 정말 새로운 작품이 된다. 처음의 작품과 비교하면 완전히 다른, 놀라운 것이 창조되었음을 알게 될 것이다.

창조, 완벽한 창조는 하나님 외에는 없다. 우리는 반복적인 수정을 통해 다른 모습을 찾는 것이다. 그래서 나는 기획실 직원들에게 명작을 위해 '테나우시'를 두려워 말라'고 늘 주장한다. '테나우시'란 공사현장용어로, 재시공, 재수정을 의미한다. 장인이나 예술가들도 단번에 명작을 뽑아내는 것이 아니다. 반복적인 테나우시를 두려워하지 않는 장인정신이 명품, 명작을 탄생시킨다.

인생도 동일하다. 인생에 테나우시를 두려워하면 안 된다. 내 인생을 명품으로 만들려면 수정에 수정을 거듭해야 한다. 잘못된 것을 고치고, 아름답지 않은 것을 수정하고, 미흡한 것을 보완할 때, 멋진 삶이 창조되고, 명품인생이 된다.

당신 삶은 아직 미완성이다. 명품인생, 인생에 명작을 남기려면 지금 과감히 수정하고 또 수정하라.

사도행전은 지금도 계속 된다

첫날 집회를 어떻게 마쳤는지, 모든 회중에게 머리에 손을 얹으라는 말씀이 있고서야 한숨을 돌릴 수 있었다. 찬양과 기도, 귀신들의 소동, 자유의 역사, 그야말로 처음부터 끝까지 성령께서 주관하고 계셨다. 이런 장면을 처음 보는 그들의 표정은 놀라움으로 가득 차 보였다. 집회를 마치고 다과를 마련한 사무실은 기쁨으로 가득했다. 대승을 거둔 기쁨으로 서로를 보는 얼굴에 미소가 떠나지 않았고, 가르시아(Garcia) 주지사, 루이스(Luis) 목사를 비롯한 현지 목회자들은 흥분한 기색이 역력했다.

성령 충만한 교회는 교제할 때 분위기로 금방 알 수 있다. 모두가 수다스러워 시

목사님은 그 말에 크게 동의하시며 이렇게 말씀하셨다.

"맞습니다. 다 예수가 하셨습니다. 나는 단지 좋은 있으나 실타니 없는 사람들에게 실타니를 지급해준 것이고, 배터리가 방전되었기에 충전만 해줬을 뿐입니다. 보았다고 통성기도를 시켰더니 성령께서 역사하셨습니다. 누구나 예수가 모험만 되면 정말 쉽습니다. 그분이 하신 그대로만 하면 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오전에 속개된 지도자 세미나에서는 또 다른 경험이 그들을 기다리고 있었다. 가르시아 주지사도 맨 앞자리에 자리 잡고 앉아있는 상태였는데, 이리저리 돌아다니는 사람들로 분위기가 좀 어

지기로 막는 것이 보였다. 분위기를 일신한 세미나는 2시간 반이 넘도록 계속되었다. 질문이 이어지며 진지하고 열띤 분위기 속에 진행되었다.

주지사는 저녁집회에서 오전 세미나를 거론하며 '자신은 목사님의 강의에 큰 은혜를 받았고, 이제부터 배운 대로 생각을 바꾸고, 이 나라를 살리는데 혼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그 말이 광고가 된 셈이었다. 세미나가 열렸던 교회로 문의전화가 빗발치며 DVD를 구하려는 사람들로 장사진을 이루고 있다는 것이다. 또한 세미나를 마치고 숙소로 도착하자 발렌시아(Valencia) 집회를 요청하는 목회자들이 기다리고 있었다. 세계의



성령으로 뒤덮여진 베네수엘라 바르가스(Vargas)

끝시끌할 수밖에 없다. 자신들이 경험한 하나님, 그 은혜를 서로 나누느라 바쁘기 때문이다. 이곳의 분위기가 딱 그러했다. 비록 자리가 없어 한구석에 주그리고 앉아서, 막을 것이 부족하여 조금씩 나누어먹을지라도 모든 것이 꿀맛이요, 입에서는 웃음이 떠날 줄 모른다. 이것이야말로 천상의 기쁨이 아니겠는가! 이튿날 아침, 식당에서 만난 루이스 목사는 주지사가 매우 기뻐한다고 전했다. 그리고 어제 집회상황을 목격한 사람들이 이구동성으로 말하기를 '목사님의 모델은 예수 그리스도'라고 했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루이스 목사는 '예수가 모델만 되면 못할 것이 없다'고 말했다.

수선했다. 목사님은 인사말을 하시다가 자리를 정돈시키고 강의를 시작하셨다. 그럼에도 어수선했던 상황이 계속되었다. 그들이 목사님을 몰라도 한참 물랐다. 보고 있던 목사님이 갑자기 마이크를 내려놓으며 엄히 말씀하셨다.

"나 이러면 세미나 안하고 갑니다. 학생이 교육받을 준비가 되어있어야지요. 이제 더 안내할 것도 없고 모두 자리에 앉으세요! 휴대폰도 모두 끄세요!"

장내는 일순간 찬물을 끼얹은 듯 조용해졌다. 그때부터 감히 앞에 돌아다니는 사람이 없었다. 주지사에게 보고하러 찾아다니던 비서진도 잠잠할 수밖에 없었다. 아니 오려고 해도 주지사가 미리 손

최고부흥사들을 초청하여 집회를 한 경험이 있다며 목사님을 모시고 집회를 하고 싶다는 것이었다.

또한 저녁집회 후에는 미국 휴스턴(Houston)에 거주하는 브라이언(Brian) 목사가 아프리카(Africa) 나이지리아(Nigeria)의 수도 아부자(Abuja)에서 집회를 열고 싶다는 것이다. 그는 자기가 지금 휴스턴에 가있어야 할 사람인데 성령의 강력한 이끌림으로 여기에 왔다는 것이다. 처음부터 모든 것이 성령의 역사가 아닐 수 없었다. 그야말로 우리는 매일 사도행전의 역사를 쓰고 있었다.

한은택 전도사

henry8829@naver.com



아프리카 나이지리아 집회를 요청한 미국 휴스턴의 브라이언 목사



베네수엘라 바르가스 지도자 세미나 광경



귀신이 드나들고 있는 오동화자 밀집한 현장 위로 끌어올리고 있다



다들 꿀은 시간과 정비례한다

이초석 목사 주일설교(고전11:1)

여러분! 저를 보고 예수를 믿으십시오. 믿음에 관한 한 저를 닮으십시오. 이 말에 코웃음을 치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교만하다고 손가락질하는 사람도 있을 줄 압니다만, 저는 당당히 말할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 되라”(고전11:1)고 한 것처럼, 저 역시 다른 것은 몰라도 믿음에 관한 한 “나를 본받으라”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습니다.

왜냐고 물으십니까? 첫째, 저는 신앙에 타협하지 않았습니니다. 저는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및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나의 제자가 되지 못한다’는 누가복음 14장 26절의 말씀에 순종하고 주님을 좇았습니다. 신앙에 저해요소는 그것이 무엇이든 다 잘라냈습니니다. 어머니의 통곡소리로 뒤로 하고,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은 자식들의 절규도 뒤로 하고 벤세페스로 가는 어미 소의 심정으로 30년을 끈게 왔습니니다. 아브라함이 갈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난 것처럼 말습니니다.

또한 귀신을 쫓는다고 교계의 심판대에 섰을 때도 저는 타협하지 않았습니니다. ‘믿지 않는 자의 사후의 영’이 귀신이라는 사실, 이것만 반복했어도 그토록 험한 길을 걸어오지 않았을 겁니다. 교계에서 제명되지 않고 편안하게 묵회할 수 있었을 겁니다. 그러나 제가 경험한 바를 어떠한 문화적인 지식 앞에 팔아먹을 수는 없었습니다. 저를 통해서 나타나는

누구를 만나는가 인생의 성패를 가른다

성령의 역사가 여실한데, 타협이란 있을 수 없었습니다. 당연히 형언할 수 없는 핍박과 모함의 다가왔지요. 숨을 쉴 수 없을 정도, 살 소망을 잃을 정도로 모진 것이었습니다. 힘들었습니다. 맞서 싸울 까도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그 안에서 저는 터득한 것이 있습니다. 날아오는 돌을 받아 그것으로 돌을 쌓는 것이었습니다. 30년 동안 저는 그들이 던지는 돌을 받아 아주 높고 튼튼한 돌담을 쌓았습니다. 내 성을 구축한 것입니다. 이제 제 아무리 큰 돌을 제게 던진다고 해도 저와는 무관합니다. 감히 돌담을 깨뜨릴 자는 이제 없습니다. 그들은 제게 돌을 던졌지만, 저는 그 돌을 타협의 재료로 삼은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들도 신앙에 타협하지 마세요. 직장에서 상사가 돼지머리에 절한다고 당장도 안 됩니다. 집안의 장손이라고, 큰 며느리라고 제사상에 절하고, 제

사음식 장만하면 안 됩니다. 물론 핍박이 옵니다. 그러나 그 핍박을 이기면 하늘의 상이 있습니다. 의의 면류관이 있습니다. “나를 인하여 너희를 욕하고 핍박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스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을 이같이 핍박하였느니라”(마5:11~12).

둘째, 저는 무슨 일에도 늘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하는 질문을 던졌 습니니다. 제 사무실 뒤편에는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라는 글

씨가 새겨진 액자가 걸려 있습니다.

저는 성도 들을 상 답 할 때



그 액자를 쳐다 보면 서 합니다. 이런 경우 예수님이라

면 어떻게 하셨을까 생각하는 겁니다. 그러면 답이 나오습니니다. 그것은 정답이요, 해답이었습니다.

저도 사람인지라 많은 실수를 했지요. 인간적인 생각으로 성도를 대할 때도 있었고, 감정적으로 일을 처리할 때도 있었습니다. 일부러 그런 것은 아니지만 누군가의 마음을 상하게 한 적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라면 이런 경우 어떻게 하셨을까 생각하면 바로 중심이 잡혔습니니다. 그래서 가난한 사람을 더 사랑할 수 있었고, 병든 자를 위해 진심으로 기도할 수 있었고, 나아가서는 이성적인 면이나 물질적인 면에서 깨닫할 수 있었습니다.

제가 늘 추창하는 말이 있지요. ‘정직하고 분명하면 땀땀하고 당당하다!’ 이것은 노력해서 되기로 어렵습니니다. 고위관직에 있는 사람이나 심지어 목회자들도 넘어지는 것을 보면 그렇습니니다. 그러나 ‘예수님이라면 이럴 때 어떻게 하셨을까?’, ‘예수님이 나를 보고 계신다면 어

떻게?’ 하고 자신에게 먼저 질문한다면 정직할 수 있습니다. 분명할 수 있습니다. 절대 불법을 행하지 않을 것이고, 남을 미워하지 않을 것이며, 가난한 자를 학대하지 않을 것입니다. 요셉이 그 샘플입니다.

저는 여러분들도 무슨 일에도, 어느 때든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하고 늘 생각하고 살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절로 ‘믿음에 덕, 덕에 지식, 지식에 열매, 열매에 인내, 인내에 경건, 경건에 형제 우애, 형제 우애에 사랑’(벧후 1:5~7)이 공급될 것입니다.

셋째, 저는 매사 최선을 다했습니니다. 제가 좋아하는 성경 구절 중 하나가 바로, “지극히 작은 것

에 충성된 자는 큰 것에도 충성되고

지극히 작은 것에 불의한 자는 큰 것에도 불의하리라”(눅16:10)는 말씀입니다. 작은 일에 충성하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보상하시는 줄 압니까?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다 착한 종이어 네가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하였으니 열 고을 권세를 차지하라”(눅 19:17).

사실 이 진리는 독특한 대가를 치른 후에 제가 깨달은 것입니다. 강회에서 기도하지 않고 단에 섰다가 입이 막혀 개방신을 당하고, 또 미국에서는 마지못해 설교하려 갔다가 눈이 터지는 등 하나님의 회초리를 맞은 경험이 있습니다. 그 후로 저는 열 명, 백 명이 있건, 만 명, 십만 명이 있건 최선을 다합니다. 또한 찬양을 해도 목이 터져라 춤을 추며 최선을 다합니다. 다윗이 법궤가 들어올 때처럼 말습니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저에게 큰일을 맡기셔서 오늘날 세계를 메주 밟으며 선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일은 대충대충, 얼렁뚱땅, 눈 가리고 아웅 하는 식으로 하면

안 됩니다. 세상일도 그렇게 하면 회사에서 잘리고 사장에게 미운 털 박힐 텐데, 하물며 하나님 일하겠습니까? 성경에도 “말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고전4:2)고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으매 내가

강한 철이 연한 철을 강하게 만드는 법이다

많은 것으로 네게 맡기리니 네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이다”(마25:21).

넷째, 저는 일생을 기도로 살았습니다. 제 목회 30년을 단 한 마디로 표현하고 한다면 ‘기도 목회’요, ‘기도의 일생’이라 말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그 힘든 세월을 꿰뚫어 버릴 수 있었느냐?’, ‘어디서 그런 능력이 나오는가?’, ‘목회성공의 비결이 무엇인가?’고 물으셔도 제 답은 오직 하나입니다. “기도했기 때문에 이 모든 것이 가능했습니다.”라고 말습니니다.

기도는 하나님을 움직이게 하는 힘이요, 천국 문을 여는 열쇠입니다. 또한 기도의 풍족은 모든 것의 풍족이며, 기도의 부족은 모든 것의 부족입니다. 그래서 저는 무슨 일이 있어도 하루 4시간 기도합니다. 집회에 나가면 7시간 기도합니다. 저의 철칙입니다. 그것이 오늘의 저와 예수살렘 교단을 만들었습니다. 여러분도 기도하세요. 기도하지 않는 자에겐 아무것도 기대할 것이 없습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마귀의 밥이 될 뿐입니다. 가능하면 부르짖고 기도하세요. 크고 놀라운 일이 일어날 것입니다.

잠깐 13장 20절에 “지혜로운 자와 동행하면 지혜를 얻고 미련한 자와 사귀면 해를 받느니라”고 했습니다. 닳은꼴은 시간과 정비례한다는 말씀이지요. 우리는 30년을 함께 해왔습니다. 그러니 닳지 않았겠습니까? 부디 저의 단점은 보지 마시고, 제 장점을 닮고 본받으십시오. 그래서 주님 앞에 섰을 때 잘 했다 칭찬받고, 예수님과 한 상에 앉아 떡을 때며, 다섯 고을, 열 고을의 왕이 됩시다. 할렐루야!

153 선교 및 구제 후원금 안내

ARS (5,000원)
(060)700-0688

은행 계좌 안내
농협 1379-01-001903

국민은행
695001-01-122494

예금주: 예수중심교회

은혜의 무게

작년 3월, 서울 구로동의 한 가정을 찾은 사회복지사는 기막힌 광경을 목격하게 되었다. 그 날은 종종 차매에 걸린 어느 할머니를 찾아가는 길이었다고 한다. 그런데 문을 열자마자 지독한 냄새가 코를 찌르려하는 것이다. 다름 아닌 시신이 썩어가는 냄새였다.

화장실에 누군가 쓰러져 있는데 할머니는 누가 찾아온 줄도 모르고 그 시신을 어루만지고 있었다. 반듯하게 누워있는 시신 위로는 두툼한 이불이 덮여져 있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이 사인(死因)을 분석한 결과, 목욕탕에서 미끄러져 뇌진탕으로 그리된 일이었다고 한다. 알고 보니 시신은 그 할머니의 딸이었다. 정병 안 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다.

차매가 심해서 자신의 과거는 물론 자기가 누군지, 가족이 누군지조차 잊어버리고 살아가던 할머니였지만 본능적으로 피가 끓었나 보다. 이미 호흡이 끊어진지도 한참이 지났건만 할머니는 행여 딸이 추울까봐 이불을 가져다 덮어주었다고 한다. 그녀가 자고 있다고 생각하면서... 일어나면 함께 먹으려고 차려놓은 밥엔 퍼렇게 곰팡이가 솟아 있었다. 정말 눈시울을 뜨겁게 하는 가슴 시린 모정(母情)이 아닐까?

이 세상에서 가장 큰 사랑은 어머니의 사랑이다. 맞다. 그러나 어머니의 사랑이 크고 위대하지만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있음을 우리는 또한 잘 알고 있다. 이사야 49장 15절은 이렇게 말씀한다.

“여인이 어찌 그 젖 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 자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그렇다. 하나님 아버지의 참 사랑이 그것이다. 언제나 변함없는 그 사랑이다. 때로는 우릴 낚추기도 하고도 시험하기도 하지만, 이 또한 마침내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 위한 인 줄 우리는 잘 알고 있다(신 8:16).

세월이 흘러감에 따라 주어지는 삶의 무게 또한 더해가는 것 같다. 목사로서 또한 가정의 가장으로서... 그러나 세월의 무게보다 더 크게 다가오는 무게가 있다. 바로 은혜의 무게가 그것이다.

내가 아직 죄인이었을 때, 아무런 조건 없이 나를 위해 희생하신 보혈의 피로 말미암아 오늘의 내가 있게 되었다. 모든 게 부족하여 천지를 분간하지 못했던 내가 그나마 이렇게 쓰임 받을 수 있게 된 것 또한 모두 귀한 종을 만나 그분의 가르침을 일추 흥내라도 내보려 했기 때문이다. 열아홉, 맛모르고 들어선 목회길이 벌써 25년 세월이 흘렀다. 그동안 참 많은 이들과 더불어 울고 웃으며 행복한 시간들을 보냈었다. 하지만 아이러니하다. 은혜를 아는 이가 적으니 더욱 그 은혜가 새롭다. 감사를 아는 이가 적으니 더욱 더 감사가 깊어진다. 목회자의 입장에서 보니 더더욱 주님의 사랑이 깊어만 간다. 세상 스승의 존재가, 총회장 목사님의 존재가 더 크게 느껴진다. 값을 갚지 못하기에 감당할 수 없는 난망지(難忘之患)의 무게로 인해 매일 밤 두 무릎을 적시운다.

신현명 목사

yeddo1@hanmail.net

귀 명창이 명창!

어떤 부부에게 있었던 일입니다.

남편은 아내가 귀가 어둡다고 생각했습니다. 자기가 무엇을 물어도 답을 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아내를 설득하여 전문병원에서 가서 귀 검사를 해보기로 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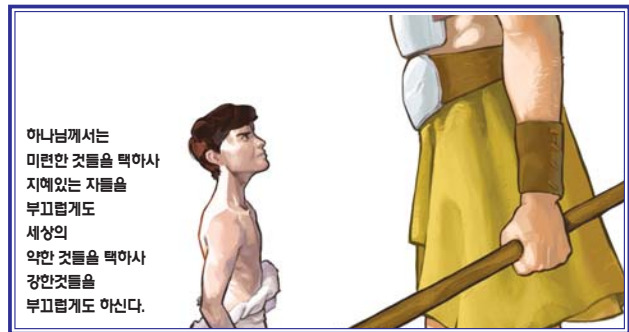
의사 선생님은 아내의 청력을 진단하고 나서서 고개를 갸우뚱거리며 남편에게 말하기를 집에 가서 아내가 어느 정도의 거리에서부터 못 알아듣는지 테스트를 해보라고 했습니다. 그날 저녁 아내가 부엌에서 저녁을 준비하는 것을 보면서 남편은 현관문에서부터 아내를 테스트하기로 했습니다. “여보! 오늘 저녁이 뭐야?” 아내는 답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거실 쪽에서 “여보! 오늘 저녁 뭐 먹냐?” 그래도 아내는 무응답입니다. 문제가 심각하다고 생각한 남편은 부엌 쪽으로 와서 아내 등 뒤에 서 다시 물었습니다. 역시 아내는 아무런 답이 없었습니다. 남편은 아내의 귀가 그렇게까지 들리지 않는다는 것에

가슴이 아팠습니다. 그래서 아내에게 다가가 등에 손을 얹으며 다정하게 “오늘 저녁이 뭐야?” 하고 물었습니다. 그러자 아내는 “아니, 오늘 저녁에 된장찌개라고 내가 벌써 세 번이나 말했잖아요. 당신 귀가 안 들리는 것 같아요. 내일 병원에 같이 가요.”라고 성질을 냈습니다.

복 있는 자가 누구일까요? 저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는 자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다들 귀가 막혀서 하나님 말씀을 듣지 못합니다. 그래서 어긋난 길로 가고, 잘못된 길로 가고, 안 가야 할 길을 가고 있습니다.

2014년, 복 있는 자가 되길 원하십니까? 귀 청소를 해야 합니다. 세상 것들로 쌓인 귀지를 청소하고, 세상 것들로 볼륨을 높인 이어폰도 빼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신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귀명창이 명창이니까요.

예수중심편집실



::성경에세이::

예복을 입어야지!

여보게!

과테말라 공항에 내리니 중년의 남자와 두 여인이 우리를 맞았네. 나는 그들이 집회를 주관한 목사라고 일행인 줄 알았지. 통역관이 미리 도착하지 않아서 그저 인사정도만 하고 있었거든. 그런데 나중에 통역관이 와서 자세히 알아보니 여인 하나가 집회를 주관한 목사였고, 남자는 고메라 시의 시장이고, 다른 여인은 국회의원이었네. 시장과 국회의원이 우리를 환영하러 나온 거지.

그런데 그들의 옷차림이 아무리 봐도 시장이나 국회의원 차림은 아니었네. 손님을 맞으러 온 차림새는 더더욱 아니었지. 시장은 티셔츠에 청바지 차림이었고, 두 여인도 그저 마실 가는 차림이었거든 며칠 후 그들이 나에게 은혜를 받는 기색을 포착한 나는, 손님을 맞이할 때는 그에 걸맞은 옷을 입어야 한다고 그들에게 가르쳤네. 의복을 갖춰 입는 것은 상대방에 대한 예절이라고 말일세. 그들 문화가 아직 거기까지는 이르지 못했기 때문이라 생각하네.

여보게!

마태복음 22장에는 임금이 예복을 입지

않는 자를 내쫓은 사건이 기록되어 있다네. 물론 이것은 하나님이 임해주시는 의의 옷, 구원의 옷을 말하는 것이며, 천국에 들어가는 조건인 회개와 믿음이라는 옷을 말씀하시는 것이지. 그러나 이 말씀은 실생활에도 그대로 적용되는 말씀이라네.

아주 오래 전의 일이 생각나네. 내가 미국에 처음 갔을 때, 나는 나를 초창한 한 박사의 안내로 상류층이 출입하는 한 클럽에 가게 되었는데, 거기서 반드시 정장을 입어야 출입이 가능한 곳이었지. 그래서 그 박사는 나에게 정장을 입으라고 했지만, 나는 고집을 부리며 편한 차림으로 그곳에 갔네. 그런데 아니나 다를까, 그곳에서 나는 입장을 저지당했네. 예복을 입지 않았다는 이유에서였지. 결국 나는 그들이 준비해가지고 온 양복을 입고서 그곳에 들어갈 수 있었다네. 그 클럽은 격이 있기 때문에 출입자의 의복에까지 신경을 쓴 거겠지.

‘내가 편하면 되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나는 아무리 세상이 변한다고 해도 예절은 있어야 하고, 격은 있다고 보네. 내 주가는 내가 높이는 것이 아니겠나.

물론 하나님은 사람의 중심을 보지만, 사람은 외관을 보지 않은가? 그런데 굳이 남에게 책잡힐 필요가 뭐가 있겠나.

웃이란 장소와 시간, 그리고 상대에 따라 갖춰 입는 것이 옳은 것이라네. 등산을 하는데 하이힐에 치마를 입고 가서는 안 되듯, 격 있는 자리나 사람을 만날 때는 그에 맞는 옷을 입어야 한다면. 그것이 상대에 대한 예의고, 예절이지. 또 그것이 자기 주가를 높이는 것이라네.

내가 늘 말하는 것이 있지. 품위라는 그릇에 예절을 담으라고. 아름다운 사람도 좋고 멋진 사람도 좋지만, 품위 있고, 예절 바른 사람이 제일이거든.

물론 웃으로 사람을 차별해서는 안 되지. 그리고 값비싼 옷을 입으라는 것도 아니니 무리해서 옷을 살 것은 없네. 다만 내 형편 안에서, 상황에 맞는 옷을 입어야 한다는 말이니가.

오늘 저녁 모임이 있다고? 학창시절 친구들이결랑 편한 옷을 입고 가고, 흠 상사와 함께라면 적당히 갖춰 입고 나가게나. “친구여 어찌하여 예복을 입지 않고 여기에 들어왔느냐 ... 그 수족을 결박하여 바깥 어둠에 내어 던지라”(마22:12-13).

朋友



귀를 기울이세요

제가 신학교 설교학 시간에 교수님께 들은 수업 내용 중 이런 것이 있었습니.

“설교자는 자신이 가는 곳마다 영혼들이 살아 나고, 그 교회가 부흥되며, 내가 단에서 말씀을 선포하면 그 설교에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확신이 있어야 한다.”

올해 2014년, “복 있는 사람들이 됩시다!”라는 슬로건을 내걸고 한 해를 시작하면서 문득 이 수업을 들을 때가 생각나는 겁니다. 처음엔 이런 확신이란 교수님처럼 말씀에 해박한 지식이 있고, 영적인 권세와 능력을 가진 사람들만 가질 수 있는 일종의 자신감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런데 그게 아니라는 생각이 들더군요. 모세같이 말에 능치 못한 자도, 다윗 같은 극약무도한 범죄자도, 바울 같은 죄인 중의 죄수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고, 그들이 가는 곳마다 흥성한 복이 있게 하셨습니다. 그들은 그런 복을 누릴 자격이 없었지만, 약속의 말씀을 주신 하나님을 신뢰하고 순종함으로 나아갔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지혜와 능력을 주셨고, 동역자들을 불러 주셨고, 가는 발걸음을 인도하신 것입니다.

2014년, 먼저 이렇게 스스로에게 믿음으로 담대히 선포하고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복 있는 사람이다. 내가 가는 곳마다 복이 따라 들어온다. 내가 가면 영혼들이 살아난다. 왜냐? 복의 근원인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계시기 때문이다!”

신재석 전도사

blessemdm@naver.com

말을 잘합시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가정과 섬기시는 교회 위에 차고 넘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014년 우리는 “복 있는 자들이 됩시다!” 라는 목표로 예수살렘교단이라는 배를 타고 힘차게 출발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목사님을 통해서 ‘복 있는 자’가 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말을 잘하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연초 삼일동안 금식을 하면서 성경을 읽어보니 하나님과 예수님의 축복은 ‘말’로 시작되었고, ‘말’로 이루어졌다는 엄청난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더욱이 더 큰 충격은 예수님이 무화과나무의 저주의 사건도(막11:12-23) 말로 하셨다는 것입니다. 말의 능력, 말의 위력이 얼마나 대단한지 늘 목사님의 말씀을 통해 알고 있었지만, 새삼스럽게 가슴에 와 닿았습니다.

말의 위력에 대한 간증이 하나 있습니다. 기도원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우리 교회 모기님 성도와 김수정 집사가 있습니다. 이 가정은 딸 셋에 외동아들로 총 4명의 자녀를 두고 있습니다. 현재는 남편이 교회를 잘 출석하고 있지

만, 처음부터 교회를 출석했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늘 남편구원을 위해서 기도했던 김 집사님은, “아들이 생기면 교회를 다니겠다.”는 남편의 말 때문에 아들을 갖기 위해 꾸준히 기도하였습니다. 하지만 첫째와 둘째와 마찬가지로 셋째도 딸이었습니다. 딸 셋으로 만족하고 자녀를 그만 낳겠다고 결정하고 6년이 지났는데, 마침 기도원에서 고추 심는 봉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봉사하던 김수정 집사에게, “김수정 집사님, 아들이 없죠? 제가 하나님께 기도할 테니까, 아들 낳으세요.” 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 말을 들은 김 집사님은, “목사님, 저 애 그만 낳을 거예요.” 라며 빙그레 웃었습니다. “아니에요. 하나님은 불가능을 가능케 하시고 없는 것도 있게 하십니다. 우리가 구하는 것을 반드시 응답하십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니, 아들을 낳으려면 고추나무를 잡고 기도를 받으세요.” 라고 했더니, 집사님이 당황하는 얼굴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한참 바라보다가, “목사님 음성을 하나님 음성으로 듣고 기도 받겠습니다. 아멘!” 하고 기도를 받았습니다.

시간이 지나, 기도원에서 다시 한 번 봉사를 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습니다. 이번에는 고추 따는 일을 하였는데, 일행 중에 김수정 집사도 있었습니다. 문득 몇 달 전에 기도했던 것이 생각나서 김수정 집사에게 다가가 “다시 한 번 기도는처럼 하자! 고추 달린 아들을 낳으려면 고추를 잡고 기도해야죠!” 라고 했더니, 김수정 집사가 “파란 고추, 빨간 고추 중 어떤 걸 잡으면 될까요?” 라고 물었습니다.

다. 그래서 저는 웃으면서 “익은 고추인 빨간 고추를 잡으세요. 그래야 응답이 빨라요.” 라고 말하고는, “내가 주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네 믿음대로 아들을 낳을지어다.” 하고 축복했습니다. 기도는 당연히 응답되는 법, 하나님께서 이 믿음의 말을 들으시고는 정확히 1년 후에 아들을 주셨습니다. 성령님이 역사하셔서 아들을 낳았다는 의미로 현성이라고 이름을 지었는데, 지금 초등학교 1학년으로 너무나 예쁘게 잘 자라고 있습니다. 그 현성의 꿈은 예수님이 인정하는 목사님이 되는 것이라고 합니다. 이 사건 이후로 김 집사님의 남편 속에 믿음이 들어갔고, 2010년 6월에 있었던 광주 김대중 컨벤션센터 전도집회를 마치고 장성 기도원으로 교회가 옮겨질 때부터 예수님을 믿기 시작하여, 금년에는 집사 임명을 받을 계획에 있습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여러분! 말은 이렇게 반드시 이루어지는 능력이 있습니다. 말을 잘하면 사람이 변하고, 가정이 변하고, 사회가 변하고, 세상이 변합니다. 그러므로 말을 잘합시다! 믿음의 말을 합시다! 축복의 말을 합시다! 감사의 말을 합시다! 긍정적인 말을 합시다! 남을 살리는 말을 합시다! 그러면 분명히 복 있는 사람이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여러분, 새해 목표대로 잘 가고 계시나요? 목표지점에서 서로 환호하며 기쁨으로 만납시다. 아직까지도 목표를 향해 출발을 하지 못하였다면, 오늘 저와 같이 시작하고 출발합시다. 할렐루야! 모든 영광 하나님께 돌립시다.

광주 예수중심교회 최권능 목사

Q&A

Q: 고등학교에 다니는 학생입니다. 학교에서 시험을 치를 때에 커닝을 하고 싶은 마음이 들어 갈등을 느낄 때가 많 습니다. 커닝도 죄입니까?

A: 학교 다닐 때 누구나 한번쯤은 경험한 적이 있고, 그런 갈등을 느낀 적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커닝을 할 때 가슴이 두근거리고 들끓고, 조마조마한 마음이 들었던 기억이 있을 것입니다. 커닝이 정당한 방법이 아니므로 양심의 가책을 받았다는 증거입니다. 노력하지 아니하고 좋은 결과를 얻으려는 커닝 행위는 남의 지식을 훔치는 도둑질이며, 부모님과 선생님을 속이는 사기행각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은 세상 사람들과는 다른 방식으로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시시때때로 우리의 마음을 감찰하시는데 정직한 마음을 기뻐하십니다(대상29:17).

자신의 양심과 선생님을 속이고 좋은 성적을 얻는 것보다 비록 형편없는 성적을 얻더라도 깨끗한 양심으로 하나님과 사람들 앞에 떳떳하고 당당한 것이 더 아름다운 일입니다.

친구들이 커닝을 통하여 좋은 성적을 얻더라도 부러워하지 말고 유혹을 뿌리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악인의 꾀를 좇아 가면 죄인의 길에 들어설 수밖에 없습니다.

커닝의 유혹 때문에 고심할 시간에 학생의 본분인 공부에 매진하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정직한 마음으로 최선을 다하는 사람을 기뻐하시고 도와주실 것입니다.

최고의 선물

::정훈, 그 아름다운 이름::

일본의 어느 예능 프로그램에서 여자출연자에게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이제까지 남자에게 받은 것 중 가장 기뻐했던 선물은 무엇인가요?” 그러자 그녀는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시간이요.” 이어서 말합니다. “소중한 시간을 쪼개서 저를 위해 시간을 만들고, 저와 같이 있어주는 게 가장 기뻐요.” 고개가 끄덕여지는 대답, 아닌가요? 상대방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는지는 시간이 말해주지요. 없는 시간을 쪼개고 쪼개서 함께 하려고 노력하는 것, 그것보다 값진 선물이 있을까 싶습니다. 연인 사이에도 가족 사이에도 그렇지요. 이번엔 질문을 바꿔서, 여러분에게 한 가지 물어볼게요. 오늘 하루 당신이 주님을 위해 쓴 시간은 얼마나 되나요? 주님을 향한 당신의 사랑이 얼마나 보이는지, 그 시간들이 대답해주었지요.

수시로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하면서, 실제로 하나님을 위해 쓰는 시간은 하루에 고작 몇 십분. 그렇지는 않았나요? 저는 그랬습니다. 일할 시간이 있어도 봉사할 시간이 없었고, 소설책 읽을 시간이 있어도 성경책 읽을 시간은 없었

고, 친구와 수다 떨 시간은 있어도 주님과 대화할 시간은 없었습니다. 평일에는 일이 바빠서, 주말에는 휴식이 필요해서, 주님께 쏟을 시간이 없었습니다. 24시간이 세상 쪽으로 치우쳐지고 있었지요.

그러던 중 지난 달, 뉴욕대학교에서 유학 중인 김슬아 자매가 교회 신문에 쓴 글을 읽고 많이 반성했습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곳의 많은 학생들과 수업 분위기 속에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 하기 위해 퍼포먼스를 계획하고, 준비하여 결국 과제 발표 날에 많은 학생들과 교수들에게 감동을 주고 큰 칭찬을 받았다는 이야기요. 그렇게 하겠다고 결심한 것도 대단하고, 그것을 위해 쏟았을 노력들도 대단하게 느껴졌습니다. 슬아 자매의 시간은 오로지 주님께 향해 있구나, 싶었습니다. 하나님은 그 시간들을 얼마나 기쁘게 받으셨을까요.

우리 인생은 성공, 그 자체가 목표는 아니지요. 성공은 주님의 이름을 높이고, 전하고, 영광을 돌리기 위한 수단일 뿐입니다. 그걸 알면서도 오늘 당장 일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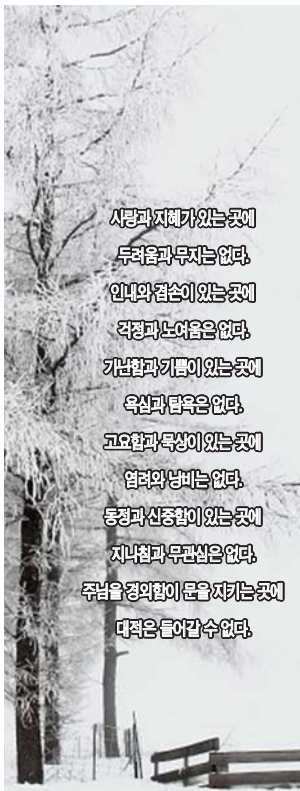
치이고, 주변 성공에 치이다보면 어느새 성공이 목표로, 주님이 수단으로 바뀌어버리기가 쉽습니다. 주님께 드리는 것은 아주 조금, 바라는 건 아주 많이, 내가 하는 일 무조건 잘 되게 해달라고 일방적인 기도를 하게 되지요. 주님보다 세상을 위해 더 많은 시간을 쏟으면 서요. 세상에 주님을 위한 시간을 빼앗기고 있으면서요.

아직 새해의 기운이 남아있는 2월입니다. 2014년 계획표에 주님을 위한 시간이 얼마나 비워져 있는지 살펴보고 다시 수정하기 좋은 2월입니다. 마음만 있다면 시간은 만들어질 겁니다. 시간이 돈으로 환산되는 이 시대에, 주님을 위해 시간을 쏟는다는 것은 얼마나 귀한 일인지요. 막달라 마리아가 향유 옥합을 깨뜨린 것처럼 당신의 귀한 시간을 하나님께 내어드릴 때, 하나님은 기뻐 받으시고 세상이 줄 수 없는 큰 복으로 보답하실 거라 믿습니다.

“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마 22:37).

신은혜

dopal0203@naver.com



사랑과 지혜가 있는 곳에

두려움과 무지는 없다.

인내와 겸손이 있는 곳에

각정과 노여움은 없다.

기쁨과 기쁨이 있는 곳에

욕심과 탐욕은 없다.

고요함과 침묵이 있는 곳에

영리와 남비는 없다.

동정과 신중함이 있는 곳에

지나침과 무관심은 없다.

주님을 경외함이 문을 지키는 곳에

대적은 들어갈 수 없다.